

實在解釋과 哲學의 立場

「現代의 思惟와 人間理念」의 續稿(二)

金基錫

人間의 理性은 實在의 解釋에 對한 根源的 要求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人間의 理性이 무단히 또 심하게 이 實在의 世界에 몰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眞理만을 收攏한다는 법은 없다. 根源의 學으로서의 哲學의 煩想가 진실로 여기에서 現成된다.

우린들은 過去의 哲學이 그치러 나온 苦難, 그 參加한 사람, 또 그 떨치는 衣裳에 比하여 實在의 世界에 對한 眞理의 收穫이 너무도 적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아니치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哲學을 回顧하는 失監이면서 아울러 哲學을 眺望하는 情熱과 感激이되기도한다. □實在의 學으로서의 過去의 哲學은 그만은 見解, 그만은 立場이 한가지로

觀念論과 唯物論에 歸還된다. 希臘哲學, 獨逸의 理性主義를 繼承發展시켰다고 이르는 現代의 代表哲學 이르면 生의 哲學, 存在論, 現象學, 辨證法, 新해-겔主義에 이르러서도 그것이 實在의 解釋에 있어서 □念論乃至 唯物論을 歸結하는데 나서는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

存在의 世界를 그 現實構造에 있어서 省察하지 못하고, 根源的 實在이라고 하여 부질없이 理性또는 自然을 내여 세우는 것은 그것이 자기를 觀念論이라고 부르거나 唯物論이라고 부르거나 간에 한가지로 觀念的 思辨으로 截斷되어야한다.

存在의 世界를 그 現實構造에 있어서 省察한다니, 이 存在의 世界의 現實構造만엇던것인가. 存在는 위선

時間的 存在가 되어야 하고 이 時間속에서 久遠한 流動轉成을 보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은 存在의 時間的 理解라고 부르려고 한다. 存在는 個物의 意味를 가지고 그 자신을 限定하게된다. 이것을 우리들은 存在의 性格的 理解라고 부르려고 한다. 存在는 그 背景으로서의 無를 가지고 이 無와의 不斷한 相互□□□에 있어서 자기를 짜나아가에 된다. 이것을 우리들은 存在의

否定的 理解라고 부르려고 한다. 存在의 世界는 그 속에 時間의 世界, 限定의 世界, 나아가 無의 世界를 包□ 또 持續한다.

哲學은 希臘에 있어서 存在의 學으로서의 意味를 가졌다. 그것이 中世에나 려와 肺에 대한 思辯에 기우러졌고

啓蒙 期에 맞대여 自然과 理性, 十八世紀, 十九世紀에 이르러 自我精神에 대한 反省에 드러섰다. 哲學이 希臘에 있어서 자기를 存在의 學으로 出發 식힌 것은 人間의 思惟의 哲學的 自覺에 있어서 한개 重大한 意義를 構成한다.

哲學은 본대 자기를 根源的 思惟, 原理的 思惟로 主張한다. 그런데 哲學은 世界에 있어서의 이 思惟의 絶對性을 固執해서는 안된다. 具體的인 思惟는 그것이 먼저 무엇에 대한 思惟가 되어야한다. 思惟의 對象또는 客觀은 어디까지든지 現實的인 存在 또 그 世界로서의 意味를 가진다.

哲學 온정히 이 現實世界的 根本構造를 反省하고 그것을 바로 說明해나아가는데 뿐이어서 그 자신의 眞實한 課題에 만난다.

이 根源的 思惟의 對象 또 그 地盤으로서의 現實은 옛던前提, 이던假定에 붙잡힌 翻譯된 世界가 되어서는 안된다. 希臘哲學이 自己를 存在의 學으로 出發식히면서 마침내 한 개 形而上學에 구러떠러진 것은 存在를 그 現實構造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世界的 背後에 어떤 絶對者를 想定한 그릇된 態度에서 온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 希臘의 觀念論的 存在論에 反對하여 어디까지든지

世界를 그 運動의 行程에 있어서 把握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저 一聯의 生成의 論理를 우리들은 記憶한다.

生成의 論理는 存在의 原理에서가 아니라 運動의 原理에서 出發한다. 存在는 본대 運動的 存在이요, 世界는 그 자신 生成의 世界的 意味를 가진다. 現實的 存在 및 그 世界는 이 運動性, 生成性에 있어서 理解되고 說明되고 規定되어야 한다고 한다. 存在의 久遠한 理念을 생각하는 理性主義와 함께 出發하여 그 곁을 스쳐 꺼질듯꺼질듯 한 개 빛나는 줄을 그어나려온 現實의 論理로서의 經驗論, 實證主義를 想起하라. 이 生成의 論理는 분명히 觀念論 理念主義에 대하여 自己를 具體的 思惟로서 主張 또 表現한다.

우리들은 이 生成의 論理가 人間思惟의 한개 尊貴한 遺産임을 알고 또 그것이 希臘哲學, 獨逸의 理性主義에 견줄수 잇는 또 그것보다 훨씬 빼어난 한개 새로운 思索體系를 構成하게 될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러나 生成의 論理는 오늘의 辨證法에 맞대여 뜻하지안흔채 自己를 觀念論에로 轉身식히고 밟았다. 이 世紀의 빛나는 哲學으로서의 辨證法. 이 辨證法은 옛던 모양의 論理的 構造 또 現實的 限界를 가지는 것인가. 辨證法은 자기를 發展의 論理

對立의 論理로 부른다. 이리하여 對立의 統一에 依한 世界의 自己開展을 가르친다.

辨證法은 어디까지던지 概念이 아니라 現實을 思惟한다고 한다. 辨證法은 자기가 現實의 論理나아가

現實의 運動조차도 된다고 한다. 辨證法은 同一律에 依據하는 形式論理에 견주어 어느 意味의 具體的 思惟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思惟의 對象 또 그 地盤으로서의 現實이 분명히 辨證法에서 말하는 대로의 現實인지 아닌지를 먼저 省察해야한다. 現實이 辨證法에 依存 할 것이 아니고, 辨證法이 現實에 依하여 反省되고 批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